

[목회자 모임]
예수 시대의 복음

2018. 6. 15. 이현래 목사님

지난 얼마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와 남북문제로 큰 회오리바람이 지나갔다. 자연스럽게 나라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문제이다. 우리는 세상나라는 살고 있지만 주요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철학자와 신학자가 모여서 교양강좌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 아시겠지만 철학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가? 속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신학은 또 철학과 무관하지 않고 서양철학과 깊은 관계가 되어있어서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려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는 신학이 철학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철학이 신학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와서 근본을 잃어버린 데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다.

교회들도 그렇게 사실은 생각하는데,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원래 건강한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야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원래 건강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병만 치료하면 돌팔이다.

옛날에 라디오 방에서 수선을 하고 오면 고장이 더 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기계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손을 보면 오히려 더 망가져버린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근본을 모르고 전하면 그냥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비록 성경을 갖고 전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보는 것은 사람이니까 근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평화가 있고 정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구분이 안 된다.

맨 처음 우리에게 보여 준 동산의 실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동산시대, 그때가 우리에게 없으면 밝혀지지 않는 이 세상을 보고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욱더 혼란에 빠질 것 같다. 근본을 모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무엇이 복음인지 분명하지 못하다. 어떤 데는 죄사함이 복음이라고 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동산을 먼저 알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어서 그 사람을 동산에 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게 했다. 사람은 결국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정해진 것이다.

그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영역이다.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다. 실낙원이라는 책 제목처럼 그런 식이지 않겠는가? 낙원을 찾으려니까 어떤 사람은 정의의 나라, 어떤 사람은 평강의 나라, 이런 식으로 나라를 찾고 있다.

사람이 제일 좋은 곳, 사람이 바라는 것을 찾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명이 발전하여 살기 좋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는가. 초기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이 여기가 천국이라고 느꼈다고 한다.

우치무라 간조 그분도 선교사들한테 선교를 받아서 미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 생각하고 미국에 배를 타고 갔다고 한다. 그때는 한참 18세기 때이니까 미국교회도 교파와 교리 문제로 많이 싸우던 때라고 한다. 30~40일 걸려서 가서 미국 교회들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어 이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

이것이 아니구나. 돌아오는 길에 깊이 생각하다가 무교회주의로 돌아가게 되었다. 교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나 조직을 반대하는 입장이 되어서 평생을 성서학당을 운영한 분으로, 성서를 연구하는 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있다가 그냥 가본 사람들은 문명이 너무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니까 이것이 천국이다, 지상천국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보여 졌다고 한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나도 워싱턴에 가보고 느낀 것은 이 거리를 우리 조상 할아버지들이 한복입고 갓 쓰고 걸어갔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분들은 여기에 와서 뭘 느꼈을까? 석조건물이 짝 있는 이 도시를 보면서 도대체 뭘 느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기개가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목을 세우고 갓을 쓰고 다녔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우스웠다.

서양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완전히 구경거리가 아니었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라. 대리석 건물이 짝 들어서있는 워싱턴 거리에 국회의사당 만해도 어마어마하다. 거기에 갓 쓴 영감들이 뒷짐을 지고 걸어갔다는 것이 너무 우스운 것이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여기가 지상낙원이라고 했을 것이다.

문화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하며 대단한 혼란이 생기는 것 같다. 철학적인 문제도 그런 것에 있는 것 같고, 신학적인 문제도 요즘 그런 것에 있는 것 같다.

동산시대, 이것은 우리의 근본이다.

뭘 하더라도 여기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 동산에서 정해진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함께 사는 그것이 동산의 내용이였다. 아주 단순하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자기가 찾아간 것이 결국 바벨을 찾아간 것이다. 동산을 잃고 찾아간 것이 바벨탑이다. 세상은 뭘 하든지 전부 바벨로 가는 길이다. 정치이거나 종교이

거나 뭐든지 바벨로 가는 길이다.

동산을 잃어버려서 동산을 모르니까 찾아갈 수가 없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거기가 어딘지를 모른다. 죽은 후에 갑자기 누가 내 영혼을 가져다가 내가 생전 모르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개념에도 없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 가겠는가?

동산을 모르면 아무리 돌아가고 돌아가도 소용이 없다. 회개해 보았자 어디로 회개하겠는가? 회개하는 것은 오던 길을 돌아서 원래의 길로 가는 것이 회개인데 어디로 갈 데가 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

옛날에 천당을 소박하게 믿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천당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갈 데가 없다. 결국 말세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고, 아니면 사회에 뛰어나가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상을 바꿔보자고 나가는 길밖에 없다.

진보적인 교회들은 길거리로 뛰어나가자는 것이고,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는 천당도 맹목 시 하지 않으니까 결국 재림을 기다리게 된다.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서 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 잡혀 있다.

중간에 있는 세대들은 다 말하기 그렇고 예수 시대와 모세 시대를 비교해보고 싶다.

모세 시대는 제사와 율법이다.

제사와 율법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축하는 기본이 되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종교의 기본이기도 하다. 이 나라가 결실을 맺은 것은 다윗의 왕국이다. 그러나 육신의 왕국이었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서 패망하고 말았다.

결국 그런 재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제사와 율법에 맞는 그런 재료가 없기 때문에 건축이 되지 않는 것이다.

바벨탑도 왜 무너졌는가? 재료가 안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견고하게 쌓는다고 하더라도 재료가 안 되면 할 수 없다.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100층 건물을 짓겠는가?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그에 따른 재료가 있어야 된다. 철근이 있고 콘크리트가 있어야 되지 나무는 아무리 좋은 나무를 갖다 놓더라도 100층은 고사하고 10층도 짓기 어렵다.

모세 시대에 건축하는 재료는 재료가 안 된 것이다. 다윗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재료가 안 되었는데 나라가 되겠는가? 제사와 율법은 그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예수 시대로 옮겨왔다는 말은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다. 사람을 바꾸는 문제이다. 니고데모에게 말할 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말은 폭탄선언이다.

어떻게 제사를 옳게 지내는가? 어떻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가?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왔던 모든 나라에 대한 개념을 다 바꾸어야 될 문제이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기다려왔던 그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된다.

예언서의 마지막을 보면 올바른 제사의 회복, 그리고 율법의 회복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세계 여러 민족이 와서 복종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 예언서의 결론이다. 그런데 이것이 다 틀렸다는 것이다. **제사나 율법이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는 것이다. 생명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없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지금도 올바른 제사법이나 율법을 찾고 있다면 이미 이것은 길이 서로 다른 것이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나라로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다.

철학이나 신학이나 말은 제사나 율법은 아니지만 전부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제사와 율법이 전부이다.

제사와 율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바로 제사와 율법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키고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하느냐? 이 문제이다.

예수에게 오면 그것이 다 소용이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니고데모는 제사와 율법에 훌륭한 사람이었다. 다 그런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찾아오니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예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이다.

동산으로 가려면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고,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동산으로 가려면 사람이 회복되어야 한다. 방법이 없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나무의 길을 가려면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다.**

화염검으로 가렸다. 그룹들로 지키게 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창3:22).”** 그래서 길을 막아 버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모세가 산에 가서 여호와를 만날 때도 시커멓고 뻑뻑한 구름, 놀라운 소리, 이런 속에서 여호와를 만났다. 알고 보면 화염검이다. 보통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소리를 들으면 기절할 소리이다.

그래서 아무도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다. 산에 근접한 자는 죽을 것이라고 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다. 화염검을 뚫고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 동산을 나왔으니깐 아무도 못 들어간다.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도 마찬가지이다. 빛이 전

혀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곳이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가는 곳이다.

대제사장도 법으로 허락한 것이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법적으로만 가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캄캄하여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았다는 말이다.

잘 모르겠지만 휘장의 두께가 10cm라고 한다. 무지무지하게 두껍게 만들어놓았다고 한다.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도저히 찢어질 수 없는 것인데 찢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하여간 지성소는 칠흠같이 어두운 곳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다. 하나님은 칠흠같은 어둠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다.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혹시 소리는 들었다고 해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혜택은 많이 입었지만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알겠는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분을 경험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금방 바알을 섬겼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나도 예수를 알기 전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분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도 그분을 모른다. 그때는 하나님이었지 예수는 아니었다. 예수는 모르겠더라. 나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더군다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도저히 안 됐다. 그때까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표이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많다. 죽을 자리에서 산 사람도 있고, 놀라운 이적을 본 사람도 있고 많다. 그분은 모른다. 누구인지 모른다. 갓바위에 갔다 온 사람이나 예배당에 갔다 온 사람이나 매한가지이다.

내가 단양 구인사 쪽에 가보았다. 요즘은 길을 좋게 해놓았는지 모르겠는데 버스를 타고 논길을 하루 종일 갔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서 결국 강을 건너지 못했다. 그런데 단양 구인사에 가는 사람이 그 나룻배를 타고 하루에 200명씩 간다고 한다. 생불이 있다고 찾아가는 것이다.

아무 효험이 없다면 찾아가겠는가?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찾아가는 것이다. 나는 그냥 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양 구인사의 생불인지 대구에 있는 갓바위 부처인지 예배당에 있는 하나님인지 모른다. 어떤 위기에서 구출 받고 어려움에서 구출 받으면 다 어딘가에 있기 때문이다. 꼭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기적도 하나님만 행한다고 생각했다. 절에 가니까 기적이야기가 굉장히 많다. 내가 스님과 1년 정도 있었는데 속으로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데 무슨 이적이 이렇게 많은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종교마다 이적이 없는 종교가 없다. 그리고 이적 없이 이단이 안 된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다 이적이 있다. 그래야 사람이 비이성적으로 말려들어간다. 사람들이 똑똑한데 영망인 곳으로 들어가겠는가? 이적을 보면 이성이 마비되어 버린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차원이 아주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다. 그래서 부르짖든지 하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르니까 알 길이 없다. 길을 알려줄 수가 없다. 내가 만나보았으면 여기에 가서 만나보라고 할 텐데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누구에게 그 말을 하겠는가. 나는 기도하다가 만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알고 보면 참 막연하다. 옛날에 교회 다니던 일을 생각하면 참 막연한 일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았다.

나도 내 인생을 인도하신 길을 보면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많다. 도저히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도저히 상상치 못할 일이 많다.

옛날부터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나를 모른다. 보통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갔는지를 모른다.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지도 모른다.

옛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직도 그 사람이 살아있느냐고 한다. 자기들이 진즉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에게 무수한 혜택을 받았다. 간증만 해도 일생 간증을 할 일을 내가 겪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른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모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는 모르고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도 하나님을 믿듯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무엇하러 세상에 오셨겠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독생자(아들)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믿게 했다. 예수도 모르고 믿으면 안 된다. 여호와를 믿듯이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같이 싸잡아 예수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니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다. 내가 그랬다.

예수 시대는 옛날과는 아주 다른 시대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는 많이 다른 것이다. 계통은 그렇게 왔지만 성질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는 혈통이지만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제사와 율법이다.

교회는 제사와 율법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듭나야하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하기 때문이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노골적으로 말하면 당신은 나로 인해서 내 안에서 다시 나야된다는 말이다. 니고데모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못했을 것이

다.
유대인 공회원의 한 사람인 그 사람이 예수를 찾아온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내 안에서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수용이 되겠는가? 거기까지 찾아온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예수 시대는 사람이 회복되는 시대이다. 인격 회복의 시대이다.

제사나 율법을 통한 인격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인격을 회복하는 그 시대이다. 우리가 전할 것은 이것이다. 제사나 율법으로 개선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내가 왜 십자가를 자꾸 이야기하는가? 이것 때문이다.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것이다. 배울 것도 많고 고칠 것도 많고 많이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하기 때문이다.

거듭난 세계 안에서의 진리와 거듭나지 않은 세계에서의 진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 평화도 다르고 정의도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서로 혼돈되어 세상도 정의를 원하고 교회도 정의를 원한다. 그러니까 똑같다.

세상도 평화를 원하고 교회도 평화를 원한다. 세상과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쇠퇴한 이유는 옛날에 교회에서 부르짖던 것들이 세상이 다 해놓았기 때문에 교회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

빈곤문제를 다 해결했다. 정의 문제도 다 해결했다. 해결 안 된 것이 없으니까 교회를 무엇하러 가겠는가? 우리말 속담에 산골 농사지어서 고라니 좋은 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셈이다. 기껏 교회가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부르짖었는데, 막상 그것을 실천한 것은 정치적이었고 문화적이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잘먹고 잘사는데 무엇하러 교회를 가겠는가.

예수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이다.

교회 건축의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이다. 다른 재료로 건축한다. 재료 자체가 다르다. 목조건물 시대에서 철근콘크리트 시대로 바뀌어진 것처럼 완전히 달라진 시대이다.

목조 건축을 건식이라고 하고, 콘크리트 건축을 습식이라고 한다. 습식 건물이나 건식 건물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인격 회복의 시대!

그 인격을 영어로는 번역하기가 곤란하다고 한다. 이런 개념이 없는 모양이다. 내가 말한 인격이라는 개념은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위치>라고 생각했다. 사람의 위치가 회복되는 것이다.

인격 회복이라고 하면 또 세속적인 말이 된다. 결국은 도로 제사와 율법으로 다듬어진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 아니다. 원래의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같이 살기를 원해서 만들어놓은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소위 세상이 말하는 인격이 온전하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대로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흙이 그냥 흙으로 있어야 농사를 짓지 흙이 다른 것이 되어버리면 농사를 짓지 못한다. 꼭 흙은 흙으로 있어야 농사를 짓는다. 여자는 여자로 있어야 아기를 낳는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대로 있어야 하나님이 뭘 하지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보다 더 좋아져도 안 되고, 더 나빠져도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면 좋겠다는 것으로 안 된다.

제사와 율법의 시대, 유대인 말로 하면 이렇지만 세상 말로 하면 제사와 율법이 아니다. 도덕이거나 철학으로 개선된 사람일 것이다. 어리석지도 않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일 것이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지을 수 없다. 그 말은 그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되지 않는다. 전혀 길이 다르고 성질이 다른데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겠는가?

아담에게 하와가 배필이라는 말은 같은 생명이어야 된다는 뜻이다. 하와는 같은 생명이 아닌 데서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다는 말이다. 생물을 다 이끌어오니까 이름 한 바가 다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배필이 없으니까 갈빗대를 빼서 지은 것이다. 갈빗대로 지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동등권이라는 말이 아니고, 한 생명이라는 뜻이다.

남자와 여자는 달라도 생명은 하나이다. 같은 생명이니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결혼을 하여 사람을 낳겠는가? 하나님은 옳은 사람 그른 사람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고상하냐 아니냐도 아니고, 정의롭냐 불의하냐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대로 그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은 순수하게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이 다른 것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히브리서에 보면 맨 처음 나온 말이 아들은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말이다. 천사는 부리는 영에 불과하지만 아들은 후사이다. 완전히 길이 다르다. 아들의 길과 천사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

선악과는 왜 먹었는가? 천사가 부러워서 먹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이 다른 의미로 하면 천사같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는가? 못 봤다. 왜 선악과를 먹었겠는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그 천사가 부러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러우면 먹는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창3:6).”** 천사의 유혹을 받은 것이다. 물론 이탈한 천사이다. 인간이 가장 부러워한 것이 천사이다. 인간은 다 할 수 있지만 천사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천사만은 안 된다. 그것이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을 신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천사가 되었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천사가 되었으면 무한 능력을 가졌을 것이다. 하나님과 방불하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은 실상 알고 보면 천사같이 된다는 말이다. 어디서든지 어떤 의미에서 다 천사가 되려고 한다. 각 분야별로 천사가 되려고 한다. 천사가 되면 하나님이 부리는 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배필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영은 또 다른 영을 원하지 않는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공중을 날아다니는 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

사람의 회복!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다.

복음은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천사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훗날 언젠가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뛰어내려 온다는 말도 아니다.

복음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사람인데 왜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가? 사람이 빛나 갔기 때문이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려니까 방법이 없다. 교육도 하고 사람 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교육을 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닌 원래 사람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가 필요하다. 예수는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 만일 우리가 직접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면 사람인지 신인지 구별이 안 됐을 것이다.

저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살렸으니까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는가? 신이라고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예수를 볼 때 그런 사람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요20:28).”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 직접 만난 사람들이 다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과 나는 너무너무 다르다. 그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면 본받을 수가 없다.

무슨 수로 본받겠는가? 예수 본받기를 원한다는 노래가 있는데, 무슨 수로 예수를 본받겠는가? 본받고 싶다는 말이 예수만큼 사랑하고 싶다가나 예수만큼 진실하고 싶다는 말이지 않겠는가. 그분을 본받을 수가 없다. 그분이 더 내려오고 더 내려와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말은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왔다는 말이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데 가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다. 하늘에 계신 것과 똑같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만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명함을 내놓겠는가? 어떻게 그분과 만나겠는가?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것이다.

그가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자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밖에 없다. 나는 아무리 보아도 없다. 거기서 만나지 못하면 만날 곳이 없다. 거기서 내가 예수를 사람으로 만나지 못하면 만날 길이 없다.

보좌 우편에 계신 이를 만나겠는가? 어디 가서 내가 그분을 만나겠는가? 옛날에 나도 그 예수를

만나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봐도 모른다. 같이 한 방에 있어도 모를 사람이다. 한 방에 같이 살아도 예수라는 사람이 모를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렸으면 모를 사람이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나를 완전히 원위치로 회복시켜 준 사람이다. 그분을 보고 또 천사같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친 것이다. 천사를 부러워한다면 미친 것이다.

확실한 인생을 보고도 사람을 보고도 또 뭘 해보려고 하면 미친 것이지 정신이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안에 내가 있는데, 도망을 어디로 가겠는가? 내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겠는가?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지겠는가? 뻘히 다 보았는데...

내 자리가 너무나 분명해진다. 비참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거기서 평안이 온다. 내 위치로 돌아오니까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온다. 감사가 온다. 이상한 일이다. 절망해야 될 텐데 절망이 안 되고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긴다.

하나님은 모르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선한 사람으로 지어진 나라는 다른 나라일 수밖에 없다. 같이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해도 다른 나라이다. 다른 나라의 정의이다. 일본 사람의 정의와 인도 사람의 정의가 다르다.

대동아전쟁 때 일본에 하천풍언이라는 유명한 성서학자이면서 신앙가가 있다. 인도 간디를 방문했는데 간디가 문기를 당신도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믿느냐고 물으니까 일본의 신앙을 대변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문둥이와 같이 살고 결핵환자와 같이 살면서 결핵도 걸렸던 사람이다. 그런데 간디에게 가서는 정의가 달라져버렸다. 간디의 정의와 하천풍언의 정의가 달라져버렸다.

사람이 다르면 모든 것이 다르다. 같은 말을 해도 다르다. 말은 한 가지뿐이니까 같은 말을 한다.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말을 한다. 그러나 사람이 다르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나라와 다르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다르다고 하셨다. 빌라도가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백성들이 와서 옹호할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고 하셨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여호와의 생각이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고 했다.

사도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2~24).”고 했다.

완전히 다르다. 같은 것이 아니다. 한 장소에서 뭘 캐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은 도라지 캐러가고, 한 사람은 인삼 캐러 간 것과 똑같다. 어떤 사람 눈에는 인삼이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도라지가 보인다.

내가 어렸을 때 나무하는 것을 따라가 보니까 내가 보아서 나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 그렇게 죽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오는지 한 짐을 금방 만들어서 온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나는 교회에서 야외소풍을 가면 보통 보물찾기를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보물을 찾은 적이 없다.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나는 찾지 못하겠는데, 어떤 사람은 2~3개씩 찾아온다. 참 신기하다.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뭐가 틀리면 안 되고 애써도 안 된다.

아내에게 나는 물건을 쓰면 꼭 그 자리에 갖다 두는데 아내는 그때그때에 따라 아무데나 놔두어 버린다. 그러면 내가 찾으려면 못 찾는다. 내가 못 찾으면 아내가 다른데 옮겨놓았구나 생각하고 아내에게 찾으라고 한다.

이런 것도 다른데 하물며 다시 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나라가 어떻게 같겠는가? 이번에 선거도 하고 트*프가 북미회담도 했는데 너희 나라는 너희 나라이고 내 나라는 내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은 말이다. 권세에 아부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로마니까 로마의 권세에 아부한 것이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사람들의 변명이 웅색하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그때 형편이 그랬으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밖에 변명이 안 된다. 변명을 하려고 해도 애매하다.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로마의 권세도 역시 위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는가? 타협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타협이라면 바울은 웅색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이 나온다.

이것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의 선포이다.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번에 어디서 강론을 하는데 이 말이 나왔다.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엇인가?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거역하는 나라에 대해서,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다. 너희는 너희 나라에 복종하라. 거역하는 사람은 거역하는 나라에 복종해야 하니까 거역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이다.

표면적으로는 로마제국의 권세이다. 바울이 말한 것은 이면적으로는 예수 나라의 권세이다.

예수 나라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싸우지 않는다. 싸울 필요가 없다. 세상 나라 권세와 싸우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고 희생한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을 예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젊었을 때 본회퍼를 읽고 굉장히 감동했다. 어떻게 저런 애국자가 있을 수 있는가! 저렇게

순수한 애국심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도 하지만 뭔가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했다가 체포되어 죽었다. 술 취한 운전사에게 차를 맡길 수 없다. 그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참 맞는 말이다. 얼마나 옳은 말인가? 히틀러라는 술 취한 주정뱅이가 독일민족을 끌고 사지로 가는데 그것을 왜 그냥 두고 있어야 되느냐는 것이다.

천재적인 신학자였다. 20대에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자격증을 받았다. 그런 사람이 미국 유니언 신학교 교수로 초빙 받아서 교수를 하고 있을 때 독일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독일로 들어가서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갔다. 정의이기 때문이다. 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더군다나 독일 인구의 85% 이상이 다 루터교(독일교회) 신자이다. 그 사람들까지도 히틀러의 민족주의에 동조했다. 본회퍼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했다. 정말 위대한 것이다.

나는 정말 감동 받았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순수한 애국자가 있는가. 그런데 책 속에는 히틀러를 원망한다거나 나찌를 원망한다는 말이 없다. 아주 깨끗하다. 거기에 더 놀랐다. 미워한다거나 원수로 생각한다는 말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뭔가 아쉽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는 세상 권세와 싸우다가 죽지 않았다. 권세에게 죽기는 죽었는데 세상 권세와 싸우다가 죽지 않았다. 이 점이 묘하게 다른 점이다. 구별하기 어렵게 다른 점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상 권세와 싸우다가 죽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 빌라도와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다. 로마 정부와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보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공중 권세와 싸우는 것이다.

예수의 권세,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권세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거기서 당연히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싸우는 사람은 아니다. 죽을지 살지는 모른다.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니까 세상 권세와 싸우는 것이 아니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것이다.

공중 권세는 무엇인가? 거역의 권세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권세이고 사탄의 권세이고 마귀의 권세이다. 공중 권세의 전쟁은 십자가 밖에는 승리할 길이 없다. 암살로도 안 되고 혁명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된다.

세상 권세는 잘했으면 성공할 수도 있다. 히틀러를 암살하고 뒤집을 수도 있다. 잘못해서 발각되어서 죽은 것이지 발각되지 않고 운동만 잘되었으면 성공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와 싸우고 있다.** 그러면 당신들은 무엇이냐? 세상에 살면서 도피한 것이 아니냐? 도피한 것이 아니고 세상 권세와 싸울 필요가 없다.

세상 권세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적이다. 우리 적을 모르면 다른 적과 싸운다. 적이 아닌 것과 싸우게 된다.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면 시골에 가면 술 먹고 오다가 도깨비를 만났다는 사람이 더러 있다. 도깨비를 만났다는 자리에 가보면 빗자루 몽둥이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빗자루 몽둥이와 밤새도록 싸우고 온 것이다. 술 먹고 정신이 오락가락한데다가 시골에는 밤에 사람이 없는 으스스한 길이 있다. 그런 곳에 오다가 착각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싸우다가 오는 것이다.

우리도 잘못하면 밤새도록 헛된 것과 싸울 수 있다. 헛된 것과 일생을 싸울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운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는 것과 싸울 수 있다. 그런 싸움을 할 사람은 또 따로 있다. 세상의 어떤 문제들과 싸우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끼리 싸운다.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싸운다.

지금 우리나라도 두 편으로 갈라져서 싸운다.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싸운다. 우리가 왜 거기에 들어가서 싸우겠는가? 우리 싸움은 다른 곳에 있다.

나는 이번에 선거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세상 흐름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잘못하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 잘하면 이기고 잘못하면 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싸우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싸움이 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싸움, 십자가 들고 김*은과 싸우겠는가? 십자가 들고 트*프와 싸우겠는가? 십자가 안에서 누구와 싸우겠는가? 십자가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밖에 없다. 그것을 보고 망할 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뿐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서 세상 권세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권세는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죽었다. 하지만 빌라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제사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기를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지만 누가 타격을 입었는가? 사람을 속이던 마귀가 타격을 입었다.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자리이다. 그 자리가 머리를 상한 자리이다. 우리가 다 속았다. 그 머리에 속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심으로서는 그는 머리가 박살났다. 더 이상 꾀를 부릴 수 없게 되었다. 더 이상 수작을 부릴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을 속일 수 없게 되었다.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속일 수 없게 되었다. 예수를 보고도 그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믿으면 미친놈이고 바보이다. 좀 심한 말이지만 똑똑하려면 거기서 가지 않아야 똑똑한 사람이니 그것을 보고도 또 다른 데를 가면 멍청하기가 이를 데 없다.

우리의 새로운 길은 예수가 내게 누구인가? 여기서 모든 해석이 달라진다.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는가? 그러면 모든 것이 해석이 다 달라진다. 이러냐 저러냐 논쟁할 필

요가 없다. 서로 다른데 왜 논쟁을 하겠는가?

바다에 가는 사람과 산에 가는 사람이 논쟁할 것이 뭐 있겠는가? 바다에 갈 사람은 바다에 가고, 산에 갈 사람은 산에 가면 된다. 범을 잡을 사람은 산으로 가는 것이고, 물고기를 잡을 사람은 바다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각자 다르다. 똑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다 목적인 바가 다 다르다.

지구는 하나뿐이다. 한 지구에 살고 있다. 발은 하나뿐이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는 둘이다. 밀을 뿌렸는데 다음날 갔더니 가라지가 났다. 누가 이렇게 뿌렸느냐고 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뿌렸다는 것이다.

씨 뿌리는 자가 둘이다. 땅은 하나이다. 사람은 하나인데 씨 뿌리는 자가 둘이다. 우리가 잘못하면 마귀에게 밭이 되고 만다. 속이는 자에게 밭이 되고 만다. 그러면 가라지만 남는다.

예수가 내게 누구인가? 예수가 우리에게 누구인가?

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는가?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이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복종하면서 세상에 복종하라는 말인가? 하나님 권세와 세상 권세는 틀리다. 전혀 다르다. 같은 권세가 아니다.

미국사람이 한국에 와 있으면서 한국 법을 범하면 한국에서 벌을 받을 것이다.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벌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저지른 죄를 여기서 벌을 받더라도 미국에 가면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라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도 나라에 대한 구별이 확실히 달라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교리적으로 제도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가 아니다. 참 묘하게 있는 나라이다. 가려져 있는 나라이고 감춰져 있는 나라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니까 빌라도는 황당했을 것이다. 자기가 왕이라고 해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고 하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있지 않다고 하니까 동문서답이다. 왕은 무슨 왕이고, 내 나라는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제사장 앞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막14:61).”** ‘그렇다.’고 대답했다. 제사장이 볼 때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진 나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진 나라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것이 점점점점 더 확대되기를 원한다. 현실적으로 확대되어서 더 열려져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이 보게 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저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가불 내게 화가 미친다는 말이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고**

전9:16)"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 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나라 사람들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산한다. 나는 피해를 본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가불 해를 받게 된다.(고전9:16 참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왜 해를 받는가? 그것은 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길이 다른데 그 사람들은 자기 사람으로 계산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자기들이 인식하게 되면 자기들 편 계산방법으로 계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잠시 동안 경험한 것인데, 어떤 시골에서는 교회를 다니면 어떤 마을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마을에서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데가 많다. 지금은 또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랬다. 교회가 사람 2~30명 모여서 하고 있는데 잘난 사람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찌질한 사람들이 다니니까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런데 나는 다 그런 것을 피하게 해주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병이 드니까 누구든지 나를 보면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될 사람으로 생각한다. 너무 편하게 되었다. 내가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기편 사람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그렇게 계산해주지 않아야 편하지 자기들 사람으로 계산하면 곤란하다.

왜 술 먹으러 가자고 하겠는가? 자기 사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술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것이지, 자기 사람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술 먹으러 가자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군대에서도 아예 처음부터 빠따를 맞을지라도 관문을 통과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쟁이로 제쳐놓는다고 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직장에서는 술을 먹지 않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아예 한번 선포를 하고 다른 생활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 저건 우리 편이 아니다. 데리고 가면 술맛이 없어진다. 술을 같이 먹고 놀아야 되는데 한 사람은 사이다나 마시고 있으면 자기들이 무시되는 것 같다. 그래서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어영부 영해놓으면 술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가지 않으면 위선자라고 욕한다. 언젠는 갔다가 언젠는 가지 않으면 욕만 먹는다. 아예 가지 않을 사람으로 알아버리면 가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 얹혀놓으면 뽕쫄할 텐데 무엇하러 데리고 가겠는가? 재미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딱 구별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교리적으로 표를 내면 욕 얻어먹는다. 예수쟁이라고 한다. 말만 저러지 사는 것을 보면 형편없다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또 욕 얻어먹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 욕 얻어먹을 짓은 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집안에는 8월 추석이 되면 선산에서 5대가 모인다. 서울에 어떤 친척이 있는데 조상 묘에 비석을 한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떤 어른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못 낸다고 했다는 것

이다.

5대조 비석을 하느라고 돈이 좀 들어서 집안에서 다 거출을 하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못 낸다고 하니까 집안사람들은 욕을 바가지로 한다. 예수를 믿어도 조상 묘를 한단는데 협조하면 되지 예수 믿는다고 못 낸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내가 가서 자기들과 같이 하니까 아주 좋아한다. 절할 때 같이 하니까 아주 좋아한다. 절해서 돈이 들어가는가? 뭐가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나를 보고 목사인데 많이 다르다고 한다. 요즘은 힘 들어서 못 가지만 또 목사가 8월에 제사 지낸다고 해마다 갔다. 가서 친척들도 만나보고 하는데, 그런데서 그런 일로 욕을 얻어먹을 필요는 없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다. 자기 처신을 잘하면 예수 믿는다고 욕 얻어먹을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있고, 있는 같은데 없고, 이런 나라이다. 공중 권세와 싸우는 것도 십자가로밖에는 싸우지 못하는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싸우고 있는지 안 싸우고 있는지 알겠는가? 모른다. 오히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싸우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특이하게 보인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1).”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이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이 방법으로 안 되는 나라이다.

흥내만 내면 욕만 얻어먹는다. 세상 사람들이 아주 예민하다. 위선자인지 위선자가 아닌지 그냥 알고,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도 잘 알고, 모를 것 같지만 우리보다 더 잘 안다.

이말 저말 했는데 하여간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나라이다. 이 나라는 어찌면 우리만의 고유한 나라이기도 하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나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고전9:16).”

복음을 전하면 그만큼 우리가 편해지고 영역이 넓어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만큼 좁아진다. 대구에서 형제들이 초창기에 좋아서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단 아니냐고 하면 대구사람들이니까 말을 잘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그냥 와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인정해 버린다. 저 사람들은 이단이구나, 이렇게 인정해버린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가불 화를 당한다.

확실하게 했어야 하는데 말을 한두 마디 꺼냈다가 뭐라고 하니까 그냥 썩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오해 받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우리 교회에 직접 와 본 사람은 없다. 목사 중에 딱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와 보았다. 자기 교

회 신자가 오니까 집회를 왔다. 자기가 직접 보고 그때 학생이었던 자기 신자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갔다. 젊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겠다. 그렇지만 너는 교회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지는 말라하고 갔다.

나는 그분이 참 양심적이라고 생각했다. 와서 보고 어떻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보지도 않고 오해를 하니까 너무 너무 비양심적인 것이다.

남산병원 사건 때도 정말 아니었다. 기독교 목사들이 더 아니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병원을 셋팅해서 개원하려고 사람도 다 뽑고 했는데 3개월을 데모해서 개원을 못했다. 손실이 얼마인가?

그런데 큰 교회에서 부녀회를 동원해서 매일 김밥을 싸서 차에 태워 왔다. 나는 그것을 보고 놀랐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후보에 모든 것을 적어서 일제히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했다.

차라리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좋을 뻔 했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병원이 망할 줄 알았다. 지금도 외래가 별로 없다. 그런데 그 병원이 왜 성공을 했는가? 전혀 아이템이 달라서 성공한 것이다.

일반 환자가 오는 병원이 아니다. 다른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후속치료를 할 병원이 필요한 것이다. 큰 병원은 병실이 부족하니까 그런 환자들을 놔두는 것이 손해이다. 어디론가 보내야 하는데 보낼 곳이 없는데, 이 병원은 시설을 잘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로 보내는 것이다.

병원하고만 거래를 하지 시장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으니까 병원이 성공하는 것이다. 길이 달라서 성공한 것이다. 그때 보니까 지독하더라.

예수 믿는 것을 잘못 믿으면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가는 것이 딱 맞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모르는 일을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선동을 하는가? 양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다. 거역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다. 이 권세는 십자가로밖에는 승리할 수 없다. 우리가 세상 권세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1시간 20분이나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알아듣기를 바란다.

제주에 가면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것이 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앞에 고를 말씀 뒤에 고르고 뒤에 고를 말씀 앞에 고라도 하나님 아방께서 잘 아시매 잘 들어주시기 바란다는 기도를 한다.

고른다는 말이 고한다는 말이다. 앞에 고할 말을 뒤에 고하고 뒤에 고할 말을 앞에 고해도 하는 말은 두서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도 하나님 아방께서 아시니까 다 알아서 해 달라는 말이다.

내가 서툴러서 그렇지 그 기도를 제주 사람이 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 나도 앞뒤 없이 말해도 여러분이 잘 소화해서 들어주시기 바란다.

<간증>

여전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본질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사람의 인격으로 바로 돌아가는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사실은 너무나 같은 말씀인거 같지만 우리 자신들이 본성이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변화되고 완전히 바뀌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뀌지 않고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사회 정의를 말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구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었던 그 인격, 인격회복을 위치회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위치를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볼까 하고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본질과 먼 것인가를 보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사람이 원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되는데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다. 그 돌아가게 하는 십자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사탄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지 않으면 피터지게 우리끼리 많이 싸웠습니다. 세상 것과 싸웠습니다. 결국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인데 그런 싸움 속에 살았구나. 우리 삶이 너무나 잘못된,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말을 새롭게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나도 같은 류로 같은 길을 가는 것으로 볼 것이니까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전해야 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더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고 인생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연합된 그 삶을 계속 사는 것이 그것이 동산을 회복하는 길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내 속에 들어있는 덜 빠진 아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빠져 나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